

반복은 무엇을 들리게 하는가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반복은 음악에서 청자의 주의를 특정 대상에 붙들어 두어 청취의 초점을 조직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동일한 반복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작곡가가 설정한 주제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 순간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를 지각 대상으로 떠오르게 한다. 철학자 들뢰즈의 구분을 빌리면, 전자는 '같은 것의 반복'으로, 반복되는 단위를 중심 주제로 고정하여 각 부분이 그 주제를 재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하는 반복이다. 후자는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으로, 표면상 동일한 단위가 되풀이되는 동안 음색·강세 등의 미세한 편차가 매 순간 지각 대상으로 떠오르는 반복이다. 주제 중심 청취에서 청자의 물음은 '이 음악이 어떤 주제를 제시하는가'이고,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의 청취에서 청자의 물음은 '지금 들리는 음향이 직전의 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이다.

주제 중심 청취를 전제한 작법에서는 반복이 참조점을 고정하는 조건이 마련된다. 반복 단위의 윤곽이 주제로 식별될 만큼 뚜렷하고 화성 전가가 되돌아갈 귀환점을 제공하는 경우, 그 반복은 차이의 노출이 아니라 주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회수된다. 예컨대 제시부-발전부-재현부로 구성된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에서 등장한 주제가 발전부에서 여러 차례 변주되다가 재현부에서 제시부에 등장한 형태로 회귀함으로써, 작곡가가 설정한 주제를 확인 및 강화하는 구조를 이룬다. 여기서 반복은 주제와의 일치·이탈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청자는 이 기준점을 통해 음악의 서사적 전개를 추적한다.

이와 달리 미니멀리즘 음악에서는 참조점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반복이 작동한다. 동어반복은 외부의 다른 요소와 결합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자기동일성만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양상이다. 동어반복이 유지되어 비교의 참조점이 될 외부 주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청자의 주의를 단위들 사이의 관계에서 반복 단위 내부의 음향 속성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라몬테 영의 「컴포지션 1960 No.7」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사례이다. 이 작품은 연주자가 완전5도 관계에 있는 B음과 F#음의 건반을 동시에 장시간 누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완전5도는 정수비를 갖는 음의 간격으로, 동시에 울리는 두 음은 한 음과 다른 한 음의 조화라기보다 그 속에 있는 무수한 배음들의 어울림으로 나타난다. 두 건반이 끊임 없이 함께 울린 상태가 유지되어 음높이 관계가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도, 청자가 지각하는 배음들의 상대적 세기와 조합은 순간마다 미묘하게 달라진다. 즉 음정 구조는 불변인데 지각은 변하는 국면이 발생한다.

스티브 라이히의 「피아노 페이즈」는, 동일한 음악 패턴을 여러 악기가 약간 다른 속도로 연주하여 처음에는 완벽히 일치하던 패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긋나게 만드는 기법인

위상 변위를 통해 차이 생성을 더욱 역동적으로 구현한다. 동일한 4마디 패턴을 한 악기는 원래 속도로, 다른 악기는 미세하게 빠른 템포로 연주하면, 같은 자리에 놓이던 음들이 서로 밀려난 정도인 위상차가 서서히 누적된다. 위상차가 청자에게 어긋남으로 감지되기 시작하는 크기를 지각 임계라 할 때,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못 미치는 구간에서는 두 성부가 여전히 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들린다. 반면 누적된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이르면 두 악기가 내는 음들이 겹치고 밀리면서 새로운 음악적 사건이 펼쳐진다. 두 성부가 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지각되는 범위 안에서 편차가 설정된 경우, 템포 편차가 클수록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아진다. 미니멀리즘 작법 관점에서 이때 발생하는 음악적 사건은 작곡가의 내면이나 음악적 서사를 직접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반복 내부의 잠재성이 발현되는 기제로 간주된다.

그러나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템포 편차가 커서 위상차가 연주 시작 직후부터 지각 임계를 넘는 경우, 두 성부는 하나의 동일 패턴이 아니라 별개의 대상으로 분리 지각되어, 그 어긋남은 차이의 생성이 아니라 두 성부의 대비 구조로 회수된다. 예를 들어 같은 4마디 패턴을 두 연주자가 함께 시작하는 연주를, 편차 설정만 달리한 두 판본으로 듣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템포 차이를 거의 감지되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둔 판본 갑에서는 지각 임계 이하의 구간 동안 자기동일성이 유지되어 어긋남이 '같은 것 안의 차이'로 지각되지만, 처음부터 뚜렷하게 다른 템포로 시작하는 판본 을에서는 두 연주가 별개 대상으로 갈라져 대비 구조로 들리기 쉽다. 또한 청자가 되풀이되는 단위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주제로 삼아 이후의 반복을 그것과의 일치 여부로 판정하면, 판본 갑에서도 그 감상은 주제 확인의 청취로 되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것의 반복과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의 구분은 작법 자체에 내재하는 필연적 속성이 아니라, 반복이 낳은 지각 결과를 상위의 고정된 주제로 회수하는가, 참조점 부재 상태에서 직전 순간과의 차이 비교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귀결이다.

1. 윗글을 바탕으로 반복의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같은 것의 반복'에서 각 부분은 중심에 놓인 주제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매 순간의 미세한 편차를 지각 대상으로 떠오르게 한다.
- ② 주제 중심 청취를 전제한 작법에서 반복은 주제와의 일치나 이탈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아니라 서사를 순간마다 새로 만들어 내는 재료로 쓰인다.
- ③ 자기동일성만이 이어져 전술 외부 주제가 주어지지 않는 반복에서는, 청자의 물음이 제시된 주제의 확인에서 직전 음향과의 차이 비교로 옮겨갈 수 있다.
- ④ 두 성부가 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지각되는 범위에서 편차를 둔 연주에서는 위상차가 서서히 쌓이다가, 그것이 지각 임계에 닿는 순간부터 두 성부가 별개 대상으로 갈라져 들린다.
- ⑤ 되풀이되는 단위 가운데 하나를 청자가 스스로 주제로 삼아 이후의 반복을 그것과 견주더라도, 미세한 템포 편차로 연주된 판본의 감상은 주제 확인의 청취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반복의 기능이 결정되는 조건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의 주의를 특정 대상에 붙들어 청취의 초점을 조직하는 일은 주제를 확인시키는 반복에만 해당하며, 차이를 드러내는 반복은 그러한 기능을 지니지 않는다.
- ② 반복 단위가 주제로 식별되고 화성 전개에 되돌아갈 지점이 마련된 작법에서는, 변주로 벌어진 편차조차 주제와의 거리를 재는 재료가 되어 동일성 확인으로 흡수된다.
- ③ 완전5도로 늘린 두 건반에서 배음들의 상대적 세기와 조합이 순간마다 달라지는 것은, 소리가 지속되는 동안 두 음의 음높이 관계가 함께 변동하기 때문이다.
- ④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못 미치는 동안 두 성부는 하나의 패턴으로 들리므로, 템포 편차를 크게 들수록 하나의 패턴으로 들리는 구간은 그만큼 길어진다.
- ⑤ 처음부터 뚜렷이 다른 템포로 시작한 판본에서 두 연주가 대비 구조로 들리는 것은, 미니멀리즘 작법에 본래 내재해 있던 속성이 발현된 결과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반복의 지각 결과가 갈리는 조건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면상 같은 단위가 되풀이되는 연주에서 청자의 물음이 주제 확인으로 향할지 차이 비교로 향할지는, 청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그 작품이 택한 작법에 의해 하나로 정해진다.
- ② 제시부의 주제가 재현부에서 원형으로 되돌아오는 악곡에서 발전부의 변주는 주제와의 거리를 재는 재료가 되며, 그 판정의 기준점은 변주가 거듭될 때마다 직전 변주로 새로 설정된다.
- ③ 완전5도로 늘린 두 건반에서 배음들의 세기와 조합이 순간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은, 소리가 지속되는 동안 두 음 사이에 위상차가 쌓여 지각 임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 ④ 두 성부가 하나의 패턴으로 들리는 범위에서 템포 편차를 더 크게 두면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닿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임계에 닿기 전의 구간에서도 두 성부는 별개 대상으로 갈라져 들린다.
- ⑤ 템포 차를 미세하게 둔 판본이라도 위상차가 이미 크게 누적된 지점부터 듣기 시작한 청자에게는, 그 어긋남이 같은 것안의 차이가 아니라 갈라진 두 대상의 대비로 지각될 수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두 회차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한 음악제에서 관악 앙상블 작품 <유지>가 두 회차로 연주된다. 두 회차 모두 정수비 관계에 있는 두 음을 연주자들이 번갈아 숨을 이어 가며 40분간 끊김 없이 유지하며, 연주자가 교대해도 두 음의 음높이 관계는 그대로 고정된다.

○ 1회차: 프로그램에 '이 음향의 흔들림은 작곡가가 겪은 오랜 투병의 기록'이라는 해설이 실려 있고, 청중 가운데 일부만 이를 읽고 입장한다.

○ 2회차: 해설은 실리지 않으며, 시작 25분 뒤 한 음이 다른 정수비 음정으로 옮겨져 두 음의 음높이 관계 자체가 한 차례 바뀐다.

- ① 1회차에서 해설을 읽고 입장한 청중의 물음은 지금의 음향이 직전의 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로 향하고, 읽지 않은 청중의 물음은 이 음악이 어떤 주제를 제시하는가로 향한다.
- ② 1회차에서 두 음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동안 그 지속 자체가 되돌아갈 귀환점을 제공하므로, 그 반복은 차이의 노출이 아니라 주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회수된다.
- ③ 1회차의 지속과 2회차의 변경 이후 지속에서는 연주자가 교대해도 음높이 관계가 고정된 채 배음 지각만 달라지며, 25분 시점에 음정 관계가 옮겨 간 것도 같은 성격의 지각 변화이다.
- ④ 1회차와 2회차의 변경 전 구간은 음높이 관계가 고정된 채 배음 지각만 달라진다는 점에서 같고, 그 변화는 미니멀리즘 작법에서 작곡가의 투병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반복 내부의 잠재성이 발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두 회차의 청취가 어느 쪽으로 갈리는지는 청중이 지각 결과를 고정된 주제로 회수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해설의 유무나 음높이 관계의 변경은 그 판단과 무관하다.

반복은 무엇을 들리게 하는가

■ 지문 분석

음악에서 반복의 두 양상: 같은 것의 반복과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

■ 개요

이 지문은 음악에서 '반복'이 청자의 주의를 조직하는 장치임을 전제하고, 동일한 반복이 두 가지 상반된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들뢰즈의 구분을 빌려 설명합니다. 하나는 반복되는 단위를 중심 주제로 고정하여 주제를 재확인하게 하는 '같은 것의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표면상 동일한 단위의 되풀이 속에서 미세한 편차를 지각 대상으로 떠오르게 하는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입니다. 지문은 소나타 형식을 주제 중심 청취의 사례로, 라몬테 영과 스티브 라이히의 미니멀리즘 작품을 차이 생성의 사례로 제시한 뒤, 마지막 문단에서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지각 임계 이하의 위상차, 청자가 주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며 두 반복의 구분이 작법에 내재하는 필연적 속성이 아니라 조건부 귀결임을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독해의 핵심은 두 반복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고, 차이 생성이 성립하는 조건과 무너지는 조건을 4~5문단에서 대조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 문단별 분석

1문단 [핵심 개념(두 반복의 정의와 청취 물음의 대립) 제시]

1문단에서는 두 반복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나누어 적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같은 것의 반복'은 반복 단위를 중심 주제로 고정해 각 부분이 주제를 재확인하는 역할만 하는 반복이고,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은 동일 단위의 되풀이 속에서 음색·강세 등의 미세한 편차가 매 순간 지각 대상으로 떠오르는 반복입니다. 두 청취에서 청자의 물음이 각각 '어떤 주제를 제시하는가'와 '직전의 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로 다르다는 대립 구도를 표시해 두면 이후 문단의 사례와 조건을 이 축에 배치하기 쉽습니다. 특히 '재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하는'이라는 표현에서 같은 것의 반복에는 차이 지각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문단 [같은 것의 반복의 작동 조건과 사례(소나타 형식) 제시]

2문단에서는 '같은 것의 반복'이 작동하는 조건을 체크합니다. 반복 단위의 윤곽이 뚜렷하고 화성 전개가 귀환점을 제공할 때 반복이 주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회수된다는 조건, 그리고 소나타 형식(제시부-발전부-재현부)에서 반복이 '주제와의 일치·이탈을 판정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는 진술을 잡아야 합니다. 이 '기준점' 표현은 1번 문항의 선지 2를 판별하는 근거이므로 위치를 각인해 둡니다.

3문단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의 사례 1(동어반복, 라몬테 영)과 주의 이동의 인과 제시]

3문단에서는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의 첫 사례로 '동어반복'의 정의와 효과를 정리합니다. 외부 요소와 결합·대립하지 않고 자기동일성만 되풀이되어 비교의 참조점이 될 외부 주제가 없으면, 청자의 주의가 단위들 사이의 관계에서 반복 단위 내부의 음향 속성으로 옮겨간다는 인과를 확인합니다. 라몬테 영의 「컴포지션 1960 No.7」 사례에서는 '음정 구조는 불변인데 지각은 변하는 국면'이라는 요약 문장이 핵심이므로, 고정된 것(음높이 관계)과 변하는 것(배음의 세기·조합의 지각)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4문단

[차이 생성의 사례 2(위상 변위, 스티브 라이히)와 지각 임계·템포 편차의 관계 제시]

4문단에서는 '위상 변위' 기법의 작동 원리와 '지각 임계' 개념을 정의로 묶어 정리합니다. 같은 패턴을 다른 속도로 연주하면 위상차가 누적되고,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못 미치는 구간에서는 두 성부가 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들리며, 임계에 이르면 새로운 음악적 사건이 펼쳐진다는 단계 구조를 따라 갑니다. 또한 '두 성부가 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지각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전제 아래 템포 편차가 클수록 임계 도달 시간이 짧아진다는 비례 관계를

조건과 함께 마킹해 두어야 합니다. 임계 도달 시 벌어지는 일을 '별개 대상으로의 분리'가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사건'으로 표현한 점이 5문단과의 구분점이므로 정확히 기억합니다.

5문단 [차이 생성의 성립 조건과 실패 조건 제시, 두 반복 구분의 조건부 성격 결론]

5문단에서는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 무너지는 두 조건을 반드시 챙깁니다. 첫째, 템포 편차가 커서 연주 시작 직후부터 위상차가 지각 임계를 넘으면 두 성부가 별개 대상으로 분리 지각되어 대비 구조로 회수됩니다. 둘째, 청자가 반복 단위 중 하나를 스스로 주제로 삼으면 미세한 편차의 판본(잡)에서도 감상이 주제 확인의 청취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두 반복의 구분이 '작법 자체에 내재하는 필연적 속성이 아니라' 지각 결과를 주제로 회수하는가, 차이 비교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귀결'이라는 결론을 확인하고, 판본 감·음의 대비 사례를 이 두 조건에 대응시켜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같은 것의 반복
반복되는 단위를 중심 주제로 고정하여 각 부분이 그 주제를 재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하는 반복. 청자의 물음은 '이 음악이 어떤 주제를 제시하는가'입니다(1문단).
-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
표면상 동일한 단위가 되풀이되는 동안 음색·강세 등의 미세한 편차가 매 순간 지각 대상으로 떠오르는 반복. 청자의 물음은 '지금 들리는 음향이 직전의 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입니다(1문단).
- 동어반복
외부의 다른 요소와 결합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자기동일성만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양상. 비교의 참조점이 될 외부 주제가 없으면 청자의 주의가 반복 단위 내부의 음향 속성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생깁니다(3문단).
- 위상 변위
동일한 음악 패턴을 여러 악기가 약간 다른 속도로 연주하여 처음에 일치하던 패턴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어긋나게 만드는 기법(4문단).
- 지각 임계
위상차가 청자에게 어긋남으로 감지되기 시작하는 크기. 위상차가 이에 못 미치는 구간에서는 두 성부가 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들리고, 임계에 이르면 새로운 음악적 사건이 펼쳐집니다(4문단).
- 조건부 귀결
두 반복의 구분이 작법에 내재하는 필연적 속성이 아니라, 지각 결과를 고정된 주제로 회수하는가 또는 참조점 부재 상태에서 차이 비교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5문단).

■ 논리적 흐름

지문은 1문단에서 두 반복 개념의 정의와 청취 물음의 대립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 같은 것의 반복이 작동하는 조건(뚜렷한 윤곽, 귀환점)과 소나타 형식 사례를, 3문단에서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의 첫 사례로 동어반복과 라몬테 영을 다룹니다. 4문단은 스티브 라이히의 위상 변위를 통해 차이 생성의 역동적 구현과 지각 임계·템포 편차의 관계를 설명하고, 5문단은 차이 생성이 무너지는 조건(시작부터 임계를 넘는 큰 편차, 청자의 자의적 주제 설정)을 제시한 뒤 두 반복의 구분이 조건부 귀결임을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즉 '정의 → 각 양상의 조건과 사례 → 성립 조건과 예외 → 조건부 구분 결론'의 흐름입니다.

■ 독해 전략

독해 전략으로는 첫째, 1문단에서 두 반복의 정의를 '주제 재확인'과 '번개의 지각'으로 명확히 나누어 밑줄을 긋고, 이후 모든 사례와 선지를 이 축에 대조합니다. 둘째, 4문단의 '두 성부가 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지각되는 범위 안에서'와 5문단의 '연주 시작 직후부터 지각 임계를 넘는 경우'처럼 조건을 한정하는 부사절을 놓치지 않습니다. 셋째, 임계 도달 시의 결과가 4문단에서는 '새로운 음악적 사건', 5문단의 실패 사례에서는 '별개 대상으로의 분리 지각'으로 다르게 서술됨을 구분합니다. 넷째, 선지에 '동시에', '~하지 않는다', '여전히' 같은 절대적 표현이 있으면 지문의 조건부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할 수 있다')과 충돌하는지 검토합니다.

■ 문제 해설

1. 정답 ③

▶ 핵심 두 반복의 정의(1문단)와 들어반복의 조건(3문단)을 결합해, 외부 주제가 없는 반복에서 청취 물음이 주제 확인에서 차이 비교로 옮겨갈 수 있음을 가능성 표현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항은 두 반복의 정의(1문단)와 각 양상이 성립·무너지는 조건(3~5문단)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3번 선지는 3문단에서 '들어반복이 유지되어 비교의 참조점이 될 외부 주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청자의 주의를 단위들 사이의 관계에서 반복 단위 내부의 음향 속성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는 진술과, 1문단에서 주제 중심 청취의 물음이 '어떤 주제를 제시하는가'이고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의 청취 물음이 '직전의 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라는 대립을 결합한 내용입니다. 자기동일성만 이어지고 전술 외부 주제가 없다는 조건이 3문단의 들어반복 상황과 일치하고, 그때 청자의 물음이 주제 확인에서 차이 비교로 옮겨갈 수 있다는 서술은 1문단의 두 물음 대립과 3문단의 주의 이동 진술을 옮긴 것입니다. 지문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능성으로 서술한 부분을 선지도 '~할 수 있다'로 유지했으므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각각 1·2·4·5문단의 조건이나 방향을 어긋나게 바꾼 것이므로, 해당 문단의 원문과 한 항목씩 대조해 배제합니다.

[선택지 분석]

- ① × 1문단에 따르면 '같은 것의 반복'은 각 부분이 중심 주제를 '재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하는' 반복이고, 매 순간의 미세한 편차가 지각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의 특성입니다. 선지는 두 반복의 기능을 한 양상에 동시에 넣어 1문단의 구분과 충돌합니다.
- ② × 2문단에 따르면 주제 중심 청취를 전제한 작법에서 반복은 '주제와의 일치·이탈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청자는 이 기준으로 서사적 전개를 추적합니다. 선지는 반복이 기준점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서사를 순간마다 새로 만들어 내는 재료'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2문단의 진술을 정반대로 바꾼 것이며 지문 어디에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 ③ ○ 3문단에서 '들어반복이 유지되어 비교의 참조점이 될 외부 주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청자의 주의를 단위들 사이의 관계에서 반복 단위 내부의 음향 속성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1문단에서 두 청취의 물음이 각각 주제 확인과 직전 음향과의 차이 비교로 대립된다고 했습니다. 이 둘을 결합하면, 자기동일성만 이어지고 외부 주제가 없는 반복에서는 청자의 물음이 주제 확인에서 차이 비교로 옮겨갈 수 있다는 선지의 서술이 성립합니다. 지문의 '~하는 경향이 있다'를 선지가 '~할 수 있다'로 가능성 그대로 옮긴 점도 일치합니다.
- ④ × 4문단에 따르면 누적된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이르면 '두 악기가 내는 음들이 겹치고 밀리면서 새로운 음악적 사건이 펼쳐진다고 했을 뿐, 두 성부가 별개 대상으로 갈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별개 대상으로의 분리 지각은 5문단에서 템포 편차가 커서 '연주 시작 직후부터' 지각 임계를 넘는 경우의 결과입니다. 선지는 4문단의 상황(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지각되는 범위에서 서서히 누적)에 5문단의 실패 조건의 결과(별개 대상 분리)를 붙여 두 문단의 조건과 결과를 잘못 엮었습니다.
- ⑤ × 5문단에 따르면 '청자가 되풀이되는 단위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주제로

삼아 이후의 반복을 그것과의 일치 여부로 판정하면, 판본 갑에서도 그 감상은 주제 확인의 청취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지는 이와 반대로 '주제 확인의 청취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5문단의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2. 정답 ②

▶ 핵심 반복의 기능은 작법에 내재한 고정 속성이 아니라, 주제로 식별될 조건과 귀환점이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지각 결과를 주제로 회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귀결입니다.

이 문항은 반복의 기능이 어떤 조건에서 결정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2문단에 따르면 반복 단위의 윤곽이 주제로 식별될 만큼 뚜렷하고 화성 전개가 귀환점을 제공하는 경우, 그 반복은 차이의 노출이 아니라 주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회수됩니다. 같은 문단의 소나타 형식 예시에서 발전부의 변주는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현부에서 주제로 회귀함으로써 주제 확인을 강화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반복은 주제와의 일치·이탈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즉 변주로 생긴 편차조차 주제와의 거리를 재는 재료가 되어 동일성 확인의 틀 안에 흡수됩니다. 5문단의 결론에서도 이 구분은 반복이 낳은 지각 결과를 상위의 고정된 주제로 회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선택지 분석]

- ① × 1문단 첫 문장에서 반복은 음악에서 청자의 주의를 특정 대상에 붙들어 두어 청취의 초점을 조직하는 장치라고 반복 일반의 기능으로 설명합니다. 이어서 동일한 반복이라도 주제 확인 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와 미세한 차이를 지각 대상으로 떠오르게 하는 경우가 나뉜다고 하므로, 주의를 붙들어 두는 기능은 두 종류의 반복에 공통으로 해당합니다.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 그러한 기능을 지니지 않는다는 서술은 1문단의 전제와 어긋납니다.
- ② ○ 2문단에서 반복 단위의 윤곽이 주제로 식별될 만큼 뚜렷하고 화성 전개가 되돌아갈 귀환점을 제공하면 그 반복은 주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회수된다고 합니다. 소나타 형식의 예에서 주제는 발전부에서 여러 차례 변주되다가 재현부에서 회귀하며, 반복은 주제와의 일치·이탈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변주로 벌어진 편차는 기준점과의 거리를 재는 재료가 되어 동일성 확인의 구조 안에 흡수되므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 ③ × 3문단에서 두 건반이 끊임 없이 함께 놀린 상태가 유지되어 음높이 관계가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도 배음들의 상대적 세기와 조합은 순간마다 미묘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음정 구조는 불변인데 지각은 변하는 국면이라고 정리하므로, 배음 조합의 변화 원인을 음높이 관계의 변동으로 설명한 이 선지는 지문이 제시한 조건과 정반대입니다.
- ④ × 4문단에서 두 성부가 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지각되는 범위 안에서 편차가 설정된 경우, 템포 편차가 클수록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템포 편차가 클수록 하나의 패턴으로 들리는 구간이 길어진다는 서술은 지문이 밝힌 비례·반비례 관계를 뒤집은 것입니다.
- ⑤ × 5문단에서 템포 편차가 커서 위상차가 연주 시작 직후부터 지각 임계를 넘으면 두 성부는 별개의 대상으로 분리 지각되어 대비 구조로 회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두 반복의 구분은 작법 자체에 내재하는 필연적 속성이 아니라 조건부 귀결이라고 명시하므로, 대비 구조로 들리는 것을 미니멀리즘 작법에 본래 내재한 속성의 발현으로 설명한 이 선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정답 ⑤

▶ 핵심 지각 임계와 위상차의 관계, 그리고 청취 시작 시점이 지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건 결합하여 추론

이 문항은 반복의 지각 결과가 갈리는 조건을 지문에서 찾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5문단에 따르면 '템포 편차가 커서 위상차가

연주 시작 직후부터 지각 임계를 넘는 경우' 두 성부가 별개 대상으로 분리 지각된다고 했고, 4문단에서는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이르면 새로운 음악적 사건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선지 ⑤는 '템포 차를 미세하게 둔 판본'이라는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위상차가 이미 크게 누적된 지점부터 듣기 시작한 청자'라는 새로운 상황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청자가 처음 접하는 시점의 위상차가 이미 지각 임계를 넘은 상태이므로, 5문단의 원리에 따라 두 성부가 하나의 패턴이 아니라 별개 대상으로 갈라져 들릴 수 있다는 추론이 성립합니다. 이는 지문의 조건(임계 이하 구간에서 시작해야 함)을 우회하여 적용한 것으로, 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적절한 추론입니다.

[선택지 분석]

- ① × 1문단에서 '동일한 반복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작곡가가 설정한 주제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 순간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를 지각 대상으로 떠오르게 한다'고 했고, 5문단에서는 '청자가 되풀이되는 단위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주제로 삼아 이후의 반복을 그것과의 일치 여부로 판정하면, 판본 값에서도 그 감상은 주제 확인의 청취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청자의 태도(주제 설정 여부)가 지각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작법에 의해 하나로 정해진다'는 서술은 지문과 어긋납니다.
- ② × 2문단에 따르면 소나타 형식에서 '반복은 주제와의 일치·이탈을 판정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하며, 청자는 이 기준점을 통해 음악의 서사적 전개를 추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준점은 '제시부에 등장한 주제'이며, 발전부의 변주는 이 고정된 주제와의 거리를 재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선지는 '판정의 기준점은 변주가 거듭될 때마다 직전 변주로 새로 설정된다'고 하여 기준점이 고정된 주제가 아니라 직전 변주로 바뀐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는 지문의 '주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능'과 어긋나며, 차이 생성 반복의 '직전 순간과의 차이 비교' 방식을 주제 중심 청취에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 ③ × 3문단에 따르면 라몬테 영의 작품에서 '두 건반이 끊임 없이 함께 놀린 상태가 유지되어 음높이 관계가 고정되어 있는 동안에도, 청자가 지각하는 배음들의 상대적 세기와 조합은 순간마다 미묘하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음정 구조는 불변인데 지각은 변하는 국면'을 설명한 것으로, 위상차나 지각 임계와는 무관합니다. 위상차와 지각 임계는 4문단에서 스티브 라이히의 「피아노 페이즈」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개념으로, 서로 다른 템포로 연주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완전5도의 배음 변화를 위상차 누적으로 설명한 것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혼동한 것입니다.
- ④ × 4문단에 따르면 '두 성부가 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지각되는 범위 안에서 편차가 설정된 경우, 템포 편차가 클수록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된다는 의미이지, 임계 이전 구간에서도 별개 대상으로 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4문단은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못 미치는 구간에서는 두 성부가 여전히 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들린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임계 이전 구간의 지각 결과를 뒤집은 이 서술은 지문과 어긋납니다.
- ⑤ ○ 4문단에 따르면 '위상차가 지각 임계에 못 미치는 구간에서는 두 성부가 여전히 하나의 동일 패턴으로 들린다'고 했고, 5문단에서는 '템포 편차가 커서 위상차가 연주 시작 직후부터 지각 임계를 넘는 경우, 두 성부는 하나의 동일 패턴이 아니라 별개의 대상으로 분리 지각된다고' 했습니다. 선지 ⑤는 '템포 차를 미세하게 둔 판본'이라는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위상차가 이미 크게 누적된 지점부터 듣기 시작한 청자'라는 새로운 상황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청자가 처음 접하는 시점의 위상차가 이미 지각 임계를 넘은 상태이므로, 5문단의 원리에 따라 두 성부가 별개 대상으로 갈라져 들릴 수 있다는 추론이 성립합니다. 이는 지문의 조건(임계 이하 구간에서 시작해야 함)을 우회하여 적용한 것으로, 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적절한 추론입니다.

4. 정답 ④

▶ 핵심 <유지>의 고정된 음높이 관계 아래에서 배음 지각만 달라지는 구간은 1회차와 2회차 변경 전 구간에 공통으로 해당하며, 그 변화는 미니멀리즘 작법에서 작곡가의 내면 전달이 아니라 반복 내부 잠재성의 발현으로 간주됩니다. 해설 문구나 음정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이 두 판단 기준을 각각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항은 <보기>의 두 회차를 지문의 원리에 대입하여 올바르게 이해한 선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3문단에서 라몬테 영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구조, 즉 정수비 음정이 고정된 채 유지되는 동안 배음 지각만 미묘하게 달라지는 국면이 <보기>의 두 회차 공통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지>는 정수비 관계의 두 음이 40분간 끊임 없이 유지되고 연주자가 교대해도 음높이 관계가 고정되므로, 1회차 전체와 2회차의 변경 전 25분 구간은 모두 '음정 구조는 불변인데 지각은 변하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4문단에서 미니멀리즘 작법의 음악적 사건은 작곡가의 내면이나 서사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반복 내부의 잠재성이 발현되는 기제로 간주된다는 진술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1회차의 해설에 적힌 투병 기록은 그 음악적 사건의 실제 성격이 아니며, 배음 지각의 변화는 반복 내부의 잠재성이 발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두 근거를 결합하면 1회차와 2회차 변경 전 구간의 공통점과 그 변화의 성격을 함께 서술한 4번 선지가 성립합니다.

[선택지 분석]

- ① × 1문단에 따르면 '이 음악이 어떤 주제를 제시하는가'는 주제 중심 청취의 물음이고, '지금 들리는 음향이 직전의 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는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의 청취의 물음입니다. 이 선지는 두 물음의 귀속을 뒤바꾸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읽은 청중은 작곡가의 투병이라는 서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주제 확인 쪽의 물음으로 기술 가능성이 있는 쪽이고, 읽지 않은 청중이 차이 비교 쪽으로 기술 수 있는 쪽입니다. 물음의 방향이 반대로 배치되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 × 2문단에서 반복이 주제 확인 기능으로 회수되려면 반복 단위의 윤곽이 주제로 식별될 만큼 뚜렷하고 화성 전개가 되돌아갈 귀환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됩니다. <유지>의 1회차는 두 음의 음높이 관계가 고정된 채 지속될 뿐이며, 지속 그 자체가 화성 전개의 귀환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3문단에서는 이처럼 비교의 참조점이 될 외부 주제가 주어지지 않을 때 주의가 반복 단위 내부의 음향 속성으로 옮겨간다고 설명하므로, 지속 자체를 귀환점으로 보아 주제 확인 기능으로 회수된다는 서술은 지문의 조건과 어긋납니다.
- ③ × 3문단에서 배음 지각의 변화는 음정 구조가 불변인 상태에서 지각만 변하는 국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2회차의 25분 시점에는 한 음이 다른 정수비 음정으로 옮겨져 두 음의 음높이 관계 자체가 바뀝니다. 이는 지각만 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음정 구조 자체가 변하는 사건이므로, 배음 지각 변화와 같은 성격의 변화라고 묶을 수 없습니다. 불변과 변화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은 서술입니다.
- ④ ○ 3문단에 따르면 정수비를 갖는 두 음이 끊임 없이 유지되는 동안 음높이 관계는 고정되어 있어도 배음들의 상대적 세기와 조합은 순간마다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유지>의 1회차 전체와 2회차의 변경 전 25분 구간은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하므로 같은 성격의 구간입니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미니멀리즘 작법에서 이러한 음악적 사건은 작곡가의 내면이나 음악적 서사를 직접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반복 내부의 잠재성이 발현되는 기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변화가 작곡가의 투병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반복 내부의 잠재성이 발현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서술이 성립합니다.
- ⑤ × 5문단에 따르면 두 반복의 구분은 지각 결과를 고정된 주제로 회수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부 귀결이므로, 청취가 걸리는 데 청중의 회수 방식이 관여한다는 앞부분은 지문과 부합합니다. 그러나 같은 5문단은 템포 편차가 커서 위상차가 시작 직후부터 지각 임계를 넘으면 두 성부가 별개 대상으로 분리 지각되어 대비 구조로 회수된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처럼 음향 조건 자체가 지각 결과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설의 유무나 음높이 관계의 변경이 판단과 무관하다는 뒷부분의 단정은 지문이 둔 조건과 어긋납니다.

■ 학습 팁

1. 조건부 개념이 등장하는 지문에서는 개념의 정의뿐 아니라 성립 조건과 예외 조건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이 문제처럼 〈보기〉 적용 문항은 조건 충족 여부를 하나씩 대조해야 오답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2. ‘~으로 간주된다’, ‘~로 회수된다’처럼 귀속을 나타내는 표현은 주체(작법 관점인지, 감상자의 해석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귀속이 달라지는 지점이 선지의 함정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3. 선지에 ‘A이더라도 B이다’ 형태의 양보 구문이 나오면, 양보절의 내용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조건인지 지문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문이 무관하다고 밝힌 조건을 영향 있는 조건으로 바꾼 선지가 오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은 무엇을 들리게 하는가

빠른 정답

1 ③	2 ②	3 ⑤	4 ④	
--------	--------	--------	--------	--

총 4문항